

## 서류평가 과정 : 1차 외부 컨소시엄 청소년 단체의 서류평가 / 2차 사무국 블라인드 서류평가 / 3차 최종 결정 및 발표

\* 이번 제 14회 정기회의 & 청소년국회는 일반 청소년들이 80% 이상 차지하는, 8대 의원만의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공식 행사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성에 대한 선입견 등을 배제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문항별로 모범답안이 있고 그동안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항목별로 채점하였습니다. 개인의 판단이 개입되는 순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처음부터 참가신청을 받을 당시 공지사항을 보면, 위원단은 서류평가와 사실 진위확인 등이 필요한 최소한의 전화면담을 통해 결정한다고 약속했고 8대 의원에 대한 별도의 심사나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 중학생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에는 잘 통솔할 수 있을지 최종 결정 단계에서 고민을 했었지만, 지난 캠프들에서 중학생 위원장들이 훌륭히 의정을 수행하셨던 사례가 많았고,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고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의 사회적 편견적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 <정치법제위원회>

#### 1. 위원장(현정현)

-> 서류 평가할 당시 선입견을 제외하고자 학교, 나이, 사는 곳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제출하신 분들 중 서류 평가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의욕, 진정성이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잘 드러났으므로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입법프로그램 활동 경험이 많아(제 12회 정치법제위원회 서기, 17회 임시회의 1차 정치법제위원회 의원, 13회 정기회의 의장단 수석 서기, 18차 임시회의 1차 정치법제위원회 간사, 18회 임시회의 2차 정치법제위원회 서기, 현재 제 8대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2. 간사(이준성)

-> '경상남도청소년참여대회' 추진위원단 워크숍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정치법제위원회 의원직과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및 일반의원분들에게도 적합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3. 서기(이가은)

-> 서기를 1순위와 2순위 모두 지원함으로써 서기에 대한 확고한 의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교내 수학동아리에서 서기로 활동하고 있으며, 프라임경제의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사문 편집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정리 활동에 능하다고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통합위원회>

#### 1. 위원장(오병주)

-> 제 16회 임시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7대 의원, 제 12회 정기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 7대 의장단 당선, 17회 임시회의에서 부의장, 13회 정기회의에서 의장

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청소년 요금을 적용을 이루어낸 활동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활동 경험과 그와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통합위원회 모든 분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계획한 바를 보고 진정성이 느껴져서 선발하였습니다.

## 2. 간사(김재석)

-> 현재 통합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도와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에 대한 이해가 다른 분들보다는 높고 위원장과 일반 의원들이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참여 경험(제 12회 일반 의원, 13회 문화방송통신통신위원회 간사, 17회 2차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8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8대 통합위원회 의원으로 활동)이 있으므로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3. 서기(김현경)

-> 서기는 단순하게 기록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의원들과 위원직들과의 단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류를 본 결과 위기대처능력과 타인에 대한 예의 및 존중, 오해가 생겼을 때의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낼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외교통상위원회>

#### 1. 위원장(윤제인)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활동(2년 정도 청소년의회 활동, 17회 임시회의, 13회 정기회의 외교통상회 간사, 18회 임시회의 의장단 서기, 3월 총회, 5월 총회, 현재 8대 정치법제위원회)에 참여하셔서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능숙한 회의를 이끌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일반의원과 위원단, 의장단 모두 경험해 보았으므로 외교통상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구 청소년 1,2기 중등부 부대표, KPELAS 사회과학 학회 사무국 팀장, 학생참여단 등 활동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을 이끄는 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2. 간사(박미정)

-> 제 18회 2차 임시회의에서 외교통상위원회 봉사단으로 참가하였으며, 학교에서 자치법정 판사와 부반장 경험을 함으로써 중간 역할을 잘 이해하고 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3. 서기(김주연)

-> 서기는 단순하게 기록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의원들과 위원직들과의 단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트북과 와이파이 기계가 필요로 하는데, 김주연님이 다 가지고 계셔서 선발하였습니다. 서류를 본 결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의원들과 간사, 위원장들의 화합을 이끌고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1. 위원장(박지현)

-> 회의를 이끌 수 있으려면 활동 경험이 있으며, 이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번 활동(13회 정기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18회 2차 임시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 참여하였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대처방법 및 해결방안을 알고 있으리라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2. 간사(이예림)

-> 지원자 중 1순위에 간사를 지명한 유일한 신청자여서 간사직에 대한 확고한 의욕이 있다고 생각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18회 임시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일반의원으로 참여하여서 이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3. 서기(이동현)

-> 청소년 국회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시지만, MUN의 참가경력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분들을 관리해주고, 적절한 때에 도움과 조언을 주며 이끌어 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서류 평가 시 타인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소외되거나 싸우지 않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1. 위원장(장희주)

-> 회의를 이끌 수 있으려면 활동 경험이 있으며, 이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 지원자 중 유일하게 저희 활동(3기 청소년기자단, 12회 정기회의와 17회 2차 임시회의, 13회 정기회의, 18회 2차 임시회의)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행사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이전의 행사 참여 경험을 통하여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방향 및 절차를 알고 있으리라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2. 간사(박기병)

-> 서류 중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팀원 모두를 이끌어가며, 타인의 의견에 경청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간사로서의 역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제 13회 정기회의에서 학생권익위원회 봉사단으로 활동한 점을 보아 이 행사를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

##### 3. 서기(안재창)

-> 서기는 단순하게 서류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원과 간사, 위원장하고도 쉽게 다가가서 팀원을 더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을 적절한 도움을 주어서 이끌 수 있고, 노트북을 통해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발하였습니다.